

## ■ 2026년 ARKO 예술창작실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ARKO 예술창작실
- 회의일시 : (1차) 2026년 3월 5일, (2차) 2026년 3월 12일
- 회의장소 : (1차) 예술가의집, (2차) 온라인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권혁규, 송가현, 심지연, 안정주, 정헌기

먼저 이번 아르코 레지던시 오픈콜에 지원해 주신 모든 작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총 550명의 작가가 지원하였습니다. 제출된 지원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단은 현재 예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세대와 분야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진지한 창작 태도와 높은 수준의 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시대 예술의 폭넓은 스펙트럼과 다양한 창작 방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모는 단순히 작품의 완성도나 작가의 경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르코 레지던시 오픈콜은 다른 국공립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징적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집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운영 일정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작가의 창작 과정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창작 계획을 가지고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레지던시는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작업 공간과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작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심사는 단순히 우수한 작가를 선발하는 경쟁적 평가라기보다는, 이 레지던시라는 공간과 환경을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작가를 찾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즉 이번 심사는 일종의 어워드나 수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성과 환경 속에서 창작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레지던시를 단순한 작업실 제공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레지던시는 하나의 장소이자 상황이며, 그 안에서 작가의 작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작가에게는 새로운 작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작가에게는 기존 작업을 심화하거나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장소 특전형 작업이 특정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듯 레지던시 역시 그 공간과 맥락 속에서 작가의 작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왜 이 레지던시에 지원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원서에는 각 작가의 작업 세계와 함께 레지던시 기간 동안 수행할 창작 계획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이 계획이 단순한 형식적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구상인지, 그리고 레지던시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안된 계획이 해당 기간 안에서 충분히 발전하고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는 레지던시 공동체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레지던시는 개별 작가의 작업 공간이면서 동시에 여러 작가들이 함께 머무르며 작업하는 공동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작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창작적 자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단은 각 작가가 레지던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뿐 아니라 다른 작가들과 어떠한 관계와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심사는 최고의 작가를 가려내는 경쟁적 선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공간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가,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다른 작가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작가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업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작가에게는 새로운 교류와 협업을 통해 작업의 방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지닌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작가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작업의 수준이나 경력만으로 결정된 결과가 아니라 레지던시라는 특정한 환경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선정되지 못한 많은 지원자들의 작업 역시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운영 조건으로 인해 모든 지원자를 함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심사위원단 역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작가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르코 레지던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이지만 모든 창작 활동을 무한히 지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해진 자원과 인력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가능한 지원 역시 일정한 범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정된 작가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출한 창작 계획을 바탕으로 레지던시 공간에서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르코의 인바운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해외작가를 국내로 초청해 지역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의미를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가의 창작 활동은 개인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르코 레지던시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작가들이 지역 커뮤니티와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번 공모에 지원해 주신 모든 작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 과정은 다양한 작업과 창작 계획을 접하며 동시대 예술의 현재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질 작가들의 활동을 기대하며 아르코 레지던시 또한 이러한 창작의 흐름 속에서 작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명 : \_\_\_\_\_ 권혁규 (서명)

\_\_\_\_\_ 송가현 (서명)

\_\_\_\_\_ 심지연 (서명)

\_\_\_\_\_ 안정주 (서명)

\_\_\_\_\_ 정헌기 (서명)